

봉사 - 공부 도반이자 경쟁자

신행연장

이종천-나침자 부부의 신행

“나모 다짜 바가외도 아라하도 삼 마 삼불다짜(모든 번뇌로부터 떠나시고, 스스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기록하신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구랍 26일, 종로 묘각사주지 총파에서 초하루법회를 마친 나침자 부부(61·불자보리약사회 회장) 부군인 이종천 거사(65·서덕석유주식회사 대표)의 사무실로 들어가서 남방불교의 <초전법륜경> 독경소리가 들려온다. 사무실 옆에 간이법당을 차린 이 거사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최근 공부하고 있는 남방불교 경전독경을 하고 있다. 나 보살은 기쁘게 법당으로 들어가 이 거사와 함께 독경을 한 뒤 참선이 들었다. 이 거사와 나 보살은 가정에도 법당을 차려놓고 매일 아침과 저녁 함께 예배를 올린다.

서로를 도반으로 생각하는 이 거사와 나 보살은 12월 23일 합격장을 발표한 제 6차 포교사교시에 나란히 합격했다. 남인불교대학과 동산불교대학을 함께 다니며 불교공부를 해 온 부부는 나란히 포교사가 된 것에 대해 남다른 감회를 갖고 있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며 현재의 삶에 감사를 느끼게 됐고, 부부사이와 가정의 훨씬 화목해졌지요. 불교공부를 하니 사업 등의 스트레스나 고민도 녹아 안경과 평온이 찾아왔지요” 또 다른 즐거움은 타종교인이었던

예비 며느리를 남인불교대학 20기로 입학시켜 졸업 후 남인선원 법당에서 지광스님 주례로 결혼시킨 일이다. 며느리는 ‘이런 훌륭한 가르침에 인도해 주신 시부모님께 감사하다’며 외동아들까지 포교하여 보살계를 함께 수계했고, 현재 수요경전도임에서 시부모와 함께 경전공부를 하고 있다.

이종천 거사는 고교시절부터 선가대에서 활동했던 기독교인이었다. 그



◀올해 포교사교시에 나란히 합격한 이종천거사와 나침자보살이 간이법당에서 함께 예배를 모시고 있다.

을 포교사교시 나란히 합격 며느리와 함께 경전공부 탐골공원에서 매달 무료투약

래서 결혼 후에도 새벽부터 불교방송 교리강좌를 듣고 열심히 절에 나가는 부인이 못마땅했다. 그러던 그가 상공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91년 심감보 사장(삼익물산)이 보내준 경영자 초찬회 지광스님 특별강연 테이프를 듣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고, 부인 나 보살의 끈질긴 포교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됐다.

이 거사는 회사 전자결제시스템 개발에 사원들의 마음순화와 불교이해를 위한 글을 수시로 올려 주는 때

뜻한 사장님이다. 98년 회장을 역임한 강서로터리클럽에도 외부연사로 무진장스님과 최봉수 교수를 초청하여 회원들에게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 적극적인 예비포교사다.

또 부인이 회장으로 있는 불자보리약사회의 든든한 물질적 정성적 후원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언젠가부터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생이 다하는 날까지 남을 위해 살 아보자”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침자 보살은 3년 전 불자보리약사회가 창립하자 천직이라 여겨왔던 약국까지 단념하고 남을 위한 봉사에 나섰다.

매달 둘째주 일요일 탐골공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무료투약봉

사를 펼치고, 강남 봉은사는 물론 타종교 복지관과 사회복지시설에도 나가 봉사중이다. 주1회 공립교회가 운영하는 서초초지관과 천주교 가평 꽃동네에 가서 수지침 봉사를 한다.

나 보살은 “종교를 떠나 내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나 간다”며 “이러한 작은 활동이 종교화해에도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거사와 나보살은 “금생에 별로 좋은 일을 한 사실이 없는 우리가 전생 수검의 지극한 업(業)의 연속으로 오늘 이렇게 너무나 감사한 삶을 누리고 있다”며 “부부로서 도반으로서 합심하여 선업 지도를 노력하며 내생에서도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한다며 서로 마주보고 빙그레 웃을지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주제가 있는 법문

“팔정도·육바라밀 실천 부처님처럼 성불하는 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경명성오도(見明星悟道) 하신날이 음력 12월 8일 성도절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날이 큰 명절로 전국 사찰마다 불자들이 모여 팔정도의 기도를 하고 각 선원에서는 정좌불(坐坐不臥)과 응명정진으로 밤을 꼬박 지새입니다.

불자라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고자 큰 원력을 세우고 신행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불한다고 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지는 것이요, 힘없는 인간이 무한한 능력과 자유자재함을 얻어 생사를 벗어 나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육신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식은 인간이 자기만을 챙기는 못난 인간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남도 생각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성불로 가는 길

탐진치 그대로 두면 미망 속에서 사는 중생

로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등 팔정도와 보시, 지계, 인욕 등 육바라밀을 실천하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남이 틀어 아니고, 유한한 세계와 영원한 세계 역시 각각이 아름답고 주춧돌입니다. 또한 극락과 이 사바세계가 틀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과 이 세상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시방세계 모든 것이 다 함유(含)되어 있음은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 세상 현실은 아집과 갈등, 시기과 질투로 얼룩져 있고 내만을 챙기고 우리만을 지키려고 다투고 투쟁으로 멍들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미망 속에 인류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면 인류사회는 다 함께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보이는 사회, 희망과 즐거움이 있는 사회, 맑고 밝게 우리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이 탐진치 삼독심을 그대로 두면 미망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



지하스님
조계종 총회장

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삼기일전하여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뀐다면 이는 곧 깨달음의 삶이요, 보살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보살심이 없이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맑고 밝은 희망이 있는 사회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리만 바꾸고 사람이 바뀐다고 우리사회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이 사회가 달라집니다.

삼기일전(三基一轉) 바로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나와 나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임을 인식해 공생의 원리를 터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공생의식이 확산되어야만 복잡 다양한 사회에서 자연스레 조화를 이루고 평화와 유지되는 인류의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 참다운 불자라면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해 삼독심으로 아집과 편견, 그리고 투쟁을 일삼는 중생의 삶을 대신해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나보다 남을 먼저 챙겨줄 줄 아는 지혜롭고 여유 있는 보살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어지럽고 어두워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희망 없는 사회를 일러 사바세계라 했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사회, 우리 모두가 함께 웃으며 맑고 밝은 사회를 화상세계(華藏世界), 극락세계(極樂世界)라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 멋진 사회로 향해 가는 길이 불도인 것입니다. 이 불도를 이루는 길은 오직 삼기일전의 길 뿐입니다. 오직 내 마음하나 바꾸는 길입니다. 그래서 불가의 가훈은 일체무심(一體無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세기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인류의 역사 앞에 함께 사는 사회를 열기 하는데 그 사명과 원력을 다 바쳐야 할 것입니다.

생활속의 불교

내가 보살이면 남도 보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가지 않는데 어찌 상대가 나를 받아 주겠는가.

마음이 상응하는 것은 물과 물을 섞는 것과 같다. 상대가 허잖아 보이고 못나 보이고 밀게 여겨질 때에는 ‘저것이 바로 내가 몰랐던 시절의, 못났던 시절의 내 모습이지!’ 하고 한 생각을 돌려 보라. 수억 겁 전회의 과정에서 나라고 하여 어찌 고상한 길만 걸어왔는가. 온갖 모습에 대해 보았을 것이니 상대가 비록 허잖게 보인다고 하여 ‘너는 아니다’라고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물에 물을 섞듯이 상대와 하나가 되려거든 먼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문을 열지 않고서는 상대가 내게로 올 수도 없고 하

나가 될 수도 없다.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를 수용할 때,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줄 때, 상대의 말을 경청할 때 비로소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반대로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강요된 순응이나 복종은 있을지 몰라도 있을 뿐 물과 물이 섞이는 것과 같은 중조, 공강, 융화는 불가능한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를 수용하는 것은 부화뇌동하는 일도 아니고 비겁한 일도 아니다. 그것은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기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의 수순일 뿐이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서도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이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격의없는 대화가 가능해지고 대화가 가능해

져야 공감대를 넓힐 수 있으며 공감대가 넓어져가 틀어 하나되는 동조(同調)가 이뤄지는 것이다. 고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무주상보시의 첫걸음이 된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상대가 사람이 아니고 식물이나 동물이라도 같다. 내가 그의 속으로 들어가야 그도 내 속이다.

내 몸 속에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순간에 내 몸의 일부가 되듯이 내가 그의 속으로 들어가면 그 순간에 나는 그의 일부가 된다. 고로 그도 나의 한 부분이 된다. 마음과 마음이 섞인다면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까지가 그이겠는가. 그냥 한마음이 된다.

내가 보살이면 남도 보살이다. 龍眼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6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권(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약성식품의 성분이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넘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탈색현상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동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때마다 되면 끝이 없는데 아픈데 거기도 두통까지 걸친 생리통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약이든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를 배꼽(신권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한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서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라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여일이 지난후에는 눈썹위의 기미때문에 남들한테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피부와 혈액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지 않을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애당되는 중상에 (O)이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쇠약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빠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눈노나 감상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십시오.

天參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인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씨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不老 仙經藥也 (연년·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화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학박사)